

신문으로 읽는 영상뉴스

전남일보 유튜브 <https://youtu.be/RIX-F4lcBQo>



전남일보 #MZ콘텐츠 #솔직담백 #에피소드

막내기자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인기몰이'

전남일보 영상콘텐츠 '막내즈' 취재 에피소드·비하인드 담아 신선한 주제·최신 트렌드 편집



새해 첫날인 1월1일 전남일보 유튜브 홈페이지에는 색다른 영상이 하나 업로드됐다. 영상의 타이틀은 바로 '막내즈'.

전남일보는 '막내 기자이자 직장인으로서 솔직하게 털어놓는 일상, MZ(막내즈)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기획해 새로운 영상 콘텐츠 시도에 나섰다.

대부분의 신문사 영상 콘텐츠는 딱딱한 방식으로 뉴스나 정보를 전달하는 게 주를 이뤘었는데, '막내즈'는 신문기자의 일상, 에피소드, 취재 비하인드 등을 자유롭게 워트 있는 대화와 함께 최신 트렌드에 맞는 편집스타일로 제작해 신선함을 보여줬다.

첫번째 '막내즈' 영상은 '회식도 근무의 연장선일까?'라는 주제로 신문사 회식 문화에 대한 의견을 나눠 눈길을 끌었다.

정성현 기자(전남일보 33기)는 "자취하기 때문에 혼자서 저녁을 때울 때가 많은데 회식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좋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혜인 기자(33기)는 "회식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근무 시간에 일적인 피드백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술의 힘을 빌려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자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34기)는 "아직 출입처가 없는 관계로 회사 내부적인 회식밖에 없어서 빈도수는 많지 않다"며 "대신 한번 하면 끝까지 간다"고 웃음 지었다.

반면 평일 회식을 하면 숙취 탓에 다음 날 취재일정이 부담스럽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갈 때까지 가는' 회식과 메뉴 선정 등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선배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회식자리에서 생긴 비하인드도 풀었는데 김 기자는 "회식 중에 타사 선배들이 휴대폰을 들고 밖에 나가길래 '축'이 와서 따라가 봤더니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돼 취재 중이었다"며 "회식 중간에 취재해서 기사를 업로드 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일보에서 정기적으로 제작해 업로드하는 막내즈는 전남일보 유튜브(<https://youtu.be/QSBRUnw2VwM>)와 전남일보 홈페이지(<http://jinilbo.com/6936906154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영 기자 [juyeong.lee@jinilbo.com](mailto:juyeong.lee@jinilbo.com)



기고 강순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조합장선거에 거는 기대와 공명선거가 돼야 하는 이유



과거 농업은 국가의 근본이었고 농어업 소득과 농어촌 인력은 산업화과정에서도 시경제를 받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 지금은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국가 경제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어업은 국가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건강한 산림은 국민에게 깨끗한 공기와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3월8일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인 수도 작고 선거운동 방법도 제한돼 금품 제공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적발이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선거관리전문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위탁관리하고 있다. 위탁관리 당시 조합장 임기가 제각각이어서 선관위의 공직선거 관리에 지장을 초래해 2015년부터는 임기를 통일, 전국 동시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에 거는 기대와 공명선거가 돼야 하는 이유를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강조하고 싶다.

첫째, 협동조합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조합장선거가 공명해야 한다.

협동조합법은 '농어민 등 조합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수산업 및 산림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조합원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조합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책임자인 조합장이 공명한 선거를 통해 선출돼야 한다.

둘째,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조합장선거가 공명해야 한다.

근목자취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선거를 방지하게 되면 공

직선거에서 금품 기대 심리가 작동해 공직선거의 공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활 주변 선거인 조합장선거가 깨끗해질 때 공직선거의 공정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셋째,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합장선거가 공명해야 한다.

최근 비료·농약 가격, 농업용 전기세,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이 농어촌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으며 애써 생산한 농작물의 가격 하락은 농어민을 절망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조합장이 공명한 선거를 통해 선출돼야 제대로 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선관위는 이법 조합장선거가 공명하게 관리되기 위해서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품 제공 사례는 무관용 원칙하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조합장선거가 공명해지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적극적인 예방 감시 활동 이외에도 후보자, 조합원,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후보자는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을 자제하고 정적으로 경쟁해야 한다. 조합원은 지연·현연·학연 등 연고 중심의 선택에서 벗어나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며 위반 사례 발견 시 선관위에 적극 신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깜깜이 선거'로 지적받는 조합장선거 운동 방법을 개선하는 입법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한 가운데 실시되길 바란다. 지혜롭고 역량 있는 조합장이 선출돼 농어촌이 풍요로워지고 주름진 농어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8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롯데시네마 총창로관. 1관: 엔트맨과 와스프:퀸텀메니아, 2관: 타이타닉, 3관: 타이타닉/영웅, 4관: 엔트맨과 와스프:퀸텀메니아, 5관: 엔트맨과 와스프:퀸텀메니아, 6관: 엔트맨과 와스프:퀸텀메니아 두다다콩:후후침의 비밀, 7관: 에메이징 모리스/교섭 네가 멀어뜨린 푸른 하늘, 8관: 영웅/메간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9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광주광역시 동구 총창로안길 12

보약, 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예금주 박주환) 무료 관리 / 활기찬 삶! 산수유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 062)369-9227